

Solvay, 울산서 리튬전지 소재개발

한국연구시험센터 개설 ... 2011년까지 75만달러 투입 연구개발 강화

벨기에의 세계적인 화학기업 Solvay가 울산에 연구시험센터를 개설했다.

Solvay에 따르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솔베이케미칼과 솔베이정밀화학을 설립한 Solvay는 중구 다운동 울산정밀화학센터에 <한국연구시험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Solvay는 2011년까지 75만달러를 출연해 리튬이온 2차전지용 기능성 화학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후에도 추가 투자와 연구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전지용 화학소재 개발에는 울산대학교와 전자부품연구원(KETI), 2차전지 연구클러스터 등 국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울산지역의 정밀화학산업과 연료전지 등 에너지 관련사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학산업의 글로벌화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Solvay 계열사에 이어 연구시험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며 “이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 화학산업의 첨단화·세계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9>